

제주지역 다크투어리즘에 대한 고찰

- 일제 강점기를 중심으로 -

강 은 정* · 고 승 익**

차 례

I. 서론	IV. 태평양전쟁과 연관된 제주도내 다크투어리즘 장소
II. 다크투어리즘의 개념	V. 다크투어리즘 명소로의 발전방향
III. 일제강점기와 태평양전쟁	

I. 서론

최근에 발생하는 자연재해와 인재에 관련된 소식들이 CNN과 BBC와 같은 방송의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다. 2010년 1월에 발생한 아이티 지진, 2011년 3월에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 지진과 해일, 최근의 방콕에서 발생한 홍수, 터키 지진 등 많은 곳에서 재난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자연재해와 같이 미디어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던 장소들은 시간이 흐른 후 방문객들이 많이 찾는 관광명소로 전환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장소가 9/11테러 사건과 붕괴된 세계무역센터를 전시한 그라운드 제로(Ground Zero)기념관이며, 매년 350만 명 이상의 방문객이 기념관 관람을 하고 있다(Blair, 2002). 이와 같이 인재, 자연재해, 전쟁과 같이 재난으로 인명피해가 있었던 장소들을 방문하는 관광현상을 다크투어리즘 현상이라고 하고 있으며 1990년부터 관광학계에서 연구되고 있다.

최근에 국내에서도 다크투어리즘 분야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있으며, 재난과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던 장소를 방문하는 관광객 수도 증가하고 있다. 경남 거제도에 위치한 거제포로수용소는 1999년에는 60만 명이 방문했으며, 2010년에는 76만 명 이상의 방문객이 포로수용소를 방문했다. 또한 대구지하철화재를 주제로 한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는 2008년에 6만 4천명이 방문했으며, 2008년도에 건설된 제주도의 4·3평화기념관에는 60만명 이상이 방문했다. 이와 같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의 다크투어리즘에 대한 연구 및 다크투어

* 제주대학교 관광경영학과 BK21 박사후 연구원

** 제주대학교 관광경영학과 강사

리즘 장소 개발은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 못하다.

국내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제주도는 세계자연유산과 세계7대자연경관에 선정되어 제주도의 아름다움을 국내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알리고 있다. 하지만 이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갖고 있는 제주도가 일제강점기를 비롯한 1960년도 이전까지 많은 비극적인 사건들을 겪었고, 이와 관련된 유적들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따라서 제주도의 비극적인 근·현대사, 특히 일본이 태평양 전쟁을 준비하면서 제주도에 구축해 놓은 여러 전쟁 유적지들을 다크투어리즘 측면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II. 다크투어리즘의 개념

1. 다크투어리즘의 정의

다크투어리즘이란 용어는 1996년에 맬컴 폴리(Malcolm Foley)와 존 레넌(John Lennon) 교수가 JFK와 관련한 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하면서 사용한 용어이며, 2000년도 'Dark Tourism'이란 책을 출판하면서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레넌과 폴리 교수는 다크투어리즘을 '죽음과 재난에 관련된 실제 또는 가공의 장소의 전시물이나 그것들이 방문객들에 의한 소비'(Foley & Lennon, 1996, p. 198)라 정의하면서 다크투어리즘의 공급과 소비측면을 모두 다루고 있다. 또한 그들은 정의는 실제의 장소 뿐만 아니라 가공의 장소도 모두 포함하고 있어서 광범위한 정의로 인정되고 있다. 추후 여러 학자들이 이 정의를 세분화하고 구체화시켰다. 최근의 다크 투어리즘은 '죽음·고통·섬뜩한 사건과 연관된 장소를 방문하는 행위'(Stone, 2006, p. 146) 라고 수요측면에서 정의하고 있다. 또한 폭력성과 잔혹성의 정도, 비극적 사건의 발생 시대 등을 고려하여, 다크투어리즘이란 용어 대신에 사나투어리즘(Thanatourism)(Seaton, 1996), 블랙 스폿 투어리즘(Black Spot Tourism)(Rojek, 1993), 모비드 투어리즘(Morbid Tourism)(Blom, 2000), 어트라스티 투어리즘(Atrocity Tourism)(Ashworth & Hartmann, 2005)과 같은 용어를 이용하는 사례들도 많다. 다크투어리즘은 다시 구체적인 테마에 따라 전쟁터관광 (Battlefield Tourism)(Baldwin & Sharpley, 2009; Ryan, 2007), 교도소관광(Prison Tourism)(Strange & Kempa, 2003; Wilson, 2008) 등으로 분류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국립국어원의 외래어 순화작업을 통하여 다크투어리즘을 '역사 교훈여행'이라 하고 있다.

2. 다크투어리즘 현상

다크투어리즘은 1990년대 후반부터 두드러지게 나타난 관광현상이지만, 실제로 새롭게 나타난 현상은 아니다. 고대시대부터 있었던 종교 성지순례(pilgrimage), 로마의 콜로세움에서 벌어진 검투 게임(gladiatorial game) 또는 빅토리아 영안실 관광(Victorian morgue

tour) 등은 과거부터 존재했던 다크투어리즘의 대표적인 사례들이다(Lennon & Foley, 2000).

1990년대 이후부터 다크투어리즘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면서 다크투어리즘 명소를 찾는 방문객 수가 급격히 증가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유대인 대학살로 유명한 아우슈비츠 수용소이다. 1990년대 초에 75만 명의 방문객이 수용소를 찾았으며, 선들러리스트와 같이 유대인 학살을 다룬 영화가 이슈화 되면서 2007년에는 120만 명 이상이 수용소를 방문했다. 이 수용소와 같이 실제의 유대인 학살 장소가 아니지만 유대인 학살을 기념하기 위해 미국 워싱턴에 설립된 유대인 대학살 기념박물관(US Holocaust Memorial Museum)에도 매년 200만명 이상이 방문하고 있다. 그리고 태평양 전쟁과 진주만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 건립된 하와이의 애리조나 기념관(USS Arizona Memorial)에는 매년 120만 명이 찾고 있다. 이 기념관도 영화 진주만(Pearl Harbour)에 의해 더 유명해진 관광명소이다.

최근에는 '죽음, 잔혹한 사건 또는 재난' 등을 테마로 관광지 또는 관광 상품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2004년 12월에 동남아시아 인근에 발생한 쓰나미(Tsunami)로 인한 피해자들을 기념하기 위해 건립된 태국의 카오락(광아)의 국립공원과 제주4·3평화기념관, 제주평화기념관, 경상남도 봉하 마을에 위치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소라 하겠다.

3. 다크투어리즘 장소 분류

실제로 '비극적인 사건' 또는 '죽음'과 주제로 한 장소는 광범위하며, 이 장소들의 특성에 따라 제공되는 관광객 체험이 다르기에 학자들은 다크투어리즘 장소가 제공하는 방문객 체험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장소들이 세분화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또한 다크투어리즘 장소의 테마와 테마의 잔혹성의 정도(the degree of dark)에 따라서 장소를 분류하였다. 시튼(Seaton)을 비롯한 몇몇 학자들은 다크 투어리즘 장소들의 메인 테마에 따라 4개의 그룹으로 아래와 같이 구분하였다.

- 과거 또는 현재의 전쟁터, 죽음의 수용소 또는 집단 처형장 (예, 유대인 학살 터인 폴란드 아우슈비츠 수용소, 캄보디아 킬링필드, 베트남 전쟁터 등)
- 유명한 사람들의 묘소 또는 기념관 (예, JFK 박물관 또는 묘소, 마더 테레사 묘소, 엘비스 프레슬리 묘소,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 등)
- 지진해일·태풍 등의 자연재난이 발생했던 장소 (예, 태국에 있는 카오락 국립공원, 카트리나 허리케인 기념관, 중국 청도에 있는 지진 기념관 등)
- 교도소 (예,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알카트라즈 교도소, 남아공의 로빈 아일랜드 교도소, 말레이시아 푸두 교도소 등)

스미스(Smith, 1998)는 직접적인 장소(Primary sites)와 간접적인 장소(Secondary sites)로 두 가지로 분류하였다. 직접적인 다크 투어리즘 장소는 폴란드의 아우슈비츠 수용소 또는

킬링필드와 같이 직접적으로 사건이 일어났던 장소들이며, 간접적인 장소들은 비극적인 사건들을 테마로 한 기념관과 박물관들이다. 마일스(Miles, 2002)도 다크 투어리즘 장소들을 '다크와 다크(dark and darker)'로 구분하였다. '어두운'이라는 뜻인 다크(dark)는 비극적인 사건, 재난, 잔혹한 사건 등과 관련된 장소들을 의미하며, '짙은 어두운'이라는 뜻인 다크(darker)는 재난, 잔혹한 사건들이 일어났던 현장을 일컫고 있다. 예를 들면, 폴란드 유대인 수용소이면서 학살 터인 아우슈비츠 수용소가 '다크'로 표현된다면, 미국 워싱턴에 있는 유대인 학살 기념관은 '다크'라고 표현할 수 있겠다.

마일스의 분류법은 필립스톤(Stone)에 의해 더 세분화 되었다. 스톤은 2006년 학술논문에서 다크투어리즘 스펙트럼(Dark Tourism Spectrum)이라는 다크투어리즘 장소 분류법을 제시했으며, 이는 장소가 전시하는 테마의 잔혹성 및 비극의 정도에 따라서 6가지(Darkest-Darker-Dark-Light-Lighter-Lightest)로 장소를 분류하는 방법이다. 문화역사유적이면서 몇 천년 또는 몇 백년 전에 발생한 비극적인 사건을 테마로 한 전시관이나 전쟁터는 그 테마의 비극의 정도가 희미해지기 때문에 라이트(Lighter) 또는 라이트스트(Lightest)라 분류되며, 최근에 발생해서 많은 희생자를 만들었으며, 그 비극의 정도가 생존해 있는 사람에게 크게 영향을 미치는 사건들이라면 다크(Darker) 또는 다크스트(Darkest)로 분류된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제주도의 항몽유적지인 항파두리는 스톤의 분류법에 따르면 라이트 또는 라이트스트에 해당되며, 제주도의 평화기념관 또는 제주4·3평화기념관은 다크로 분류된다.

4. 다크투어리즘 특성

다크투어리즘은 방문객 체험에서 일반 타 관광지와는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다. 첫째로 인터넷을 포함한 미디어(Media)의 영향력이다. 대부분의 전쟁, 자연재해, 테러와 같은 사건들은 TV나 인터넷을 통해서 보도된다. 이런 사건소식을 접한 사람들은 사건이 일어난 장소에 대한 호기심을 갖게 된다. 이런 이유로 인하여 신문이나 잡지 표지, TV뉴스의 헤드라인, 영화 속에서의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던 장소들은 특별한 관광마케팅이 없이도 유명한 다크투어리즘 명소들로 손쉽게 개발되어왔다. 하지만 이런 명소들은 미디어의 영향으로 인하여 방문객들에게 비극적인 사건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는 임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다시 말하면, 미디어들의 형상화된 비극적인 사건들과 장소들의 이미지는 방문객들로 하여금 실제의 사건현장에서 미디어가 만들어 놓은 이미지만을 찾게 만들며, 그 외에 장소가 제공하는 교육적인 내용들은 수용하길 거부하게 만든다고 한다 .

둘째로 다크투어리즘의 동기는 다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학자들은 다크투어리즘 장소 방문동기를 호기심, 연민 또는 동정심, 공포, 교육, 향수(그리움), 기념, 생존자 신드롬(Survivor syndrome or 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 의무감 등이라 주장하고 있다.

셋째로 다크투어리즘 장소들이 관광지화 되는 것은 윤리적인 관점에서 볼 때 모순이 된다. 다크투어리즘 장소는 '죽음, 재난, 잔인한 사건'들을 전시하고 있기에, 상업적인 특징이

강한 '관광'과는 실제로 언밸런스하다. 즉, 다크투어리즘 장소들의 개발은 '죽음과 역사적인 비극적인 사건'들을 상업화 하는 행위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는 비윤리적인 행위로 규정되고 있기에 다크투어리즘 상품개발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많은 다크투어리즘 장소들은 '상업화'라는 이미지를 줄이기 위하여, 방문객들의 교육적인 면에 주력하고 있으며, 입장료를 받지 않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다(Foley & Lennon, 1997).

넷째로, 다크투어리즘 장소에 대한 해석학인데, 흔히 다크투어리즘 장소의 해석은 정치권력에 쉽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연재해를 제외한 전쟁이나 이념분쟁과 같은 인재로 인한 사건들은 해석되는 시점의 정치권력에 따라 재해석되기 때문에 공정성을 띄기 어렵다고 한다. 따라서 다크투어리즘 장소들이 전시하는 테마들은 현시대의 정치적 배경에 의해 재해석된 내용들이며, 선택적인 내용들로 전시된다(Wight & Lennon, 2007). 또한 다크투어리즘 장소는 비극적인 사건의 효과적인 전달을 위해 방문객들의 감정을 자극할 수 있는 해석법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다크투어리즘 장소들은 사건이 발생한 장소의 현장보존에 힘쓰고 있으며, 기념관이나 박물관에는 비극적이며 잔혹한 사건 또는 피해자의 고통을 더 부각시키기 위해 기술적인 장비들을 이용하여 실제와 같은 상황을 재현하는데 노력하고 있다(Uzzell, 1989).

위와 같이 대개의 다크투어리즘 장소들은 교육을 목적으로 하며, 관광으로 인한 경제적 이득보다는 과거에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건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데 주력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을 위한 위로와 기념, 또는 피해자와 피의자의 화해와 용서, 과거의 잘못된 과실로 인해 발생한 재난들을 극복하여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려는 의지 등을 담고 있다.

다크투어리즘은 아시아지역보다는 유럽이나 미국에서 먼저 연구되어진 학문이며, 최근에는 아시아지역에서도 관심을 보이며 연구되고 있다. 영국에서는 다크투어리즘센터가 2011년에 건립되어 전문적으로 다크투어리즘 현상에 대해 연구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워크샵과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있다. 하지만 아시아 지역은 문화적인 이유와 정치적인 불안정으로 인해 비극적인 사건과 연관된 장소를 많이 보유하고 있고 그 사건에 대한 스토리를 제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크투어리즘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전쟁과 이념분쟁의 장소 등과 같은 장소를 관광지화하거나 역사교육 현장으로 제공하고 있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다음의 내용은 현재의 제주도에 제공될 수 있는 다크투어리즘 자원을 소개하고자 한다. 특히 일제강점기 시대 중에서도 제주도에 많은 피해를 제공한 태평양 전쟁을 중심으로 기술하겠다.

III. 일제강점기와 태평양전쟁

1. 일제강점기

우리나라 근·현대사에서 일제강점기는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시대이다. 국어대사전에 의하면 일제강점기는 ‘일본이 통치 시대의 조선’ 이라고 하고 있으며, 1910년 8월 29일부터 1945년 8월 15일인 대한민국이 일본으로부터 독립하는 시기를 말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 시기는 일본의 한반도 지배 정책에 따라 세시기로 구분하는데 ‘헌병 경찰 통치기(무단통치기) (1901년~1919년), 문화통치기(1919년~1931년) 그리고 민족 말살 통치기(1931년~1945년)이다. 이 세 시기 중에서 민족말살 통치기에는 일본이 중국침략을 본격화한 시기이며, 한반도를 일본의 중국대륙 진출의 병참기지로 삼고, 일본의 경제적 지배 정책도 병참기지화로 정책을 선취한 시기이다. 또한 이 시기 동안에 중일전쟁과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면서 한반도와 제주도에 많은 피해를 입혔다(제주역사문화진흥원, 2008).

2. 태평양전쟁

태평양 전쟁은 1941년 12월에 일본군이 미국 하와이 진주만 기습을 계기로 시작되어 1945년 8월까지 약 3년 9개월 동안 일본과 연합국 사이에 일어난 전쟁이다. 태평양 전쟁의 초반에는 일본 해군이 진주만과 미얀마, 네덜란드령 동인도, 남서태평양제도를 파죽지세로 점령하여 동남아시아 전역을 손에 넣었다. 하지만 1942년 미국이 미드웨이 해전에서 승리를 거두며 승기를 잡고, 아시아 태평양 곳곳에서 일본군을 고립시켰으며, 1944년 여름 무렵부터 괌, 사이판 등 마리아나 제도에서 일본이 패전하면서 수세에 몰렸고, 1945년 태평양 전쟁은 연합국의 승리로 끝이 났다(제주역사문화진흥원, 2008).

태평양 전쟁은 그 규모와 기간에도 불구하고 같은 시기에 유럽에서 발생한 전쟁들로 인해서 비교적 덜 관심을 받아왔다. 또한 태평양 전쟁을 소재로 한 영화나 소설 등의 작품 수는 같은 시기에 유럽 여러 나라에서 발생한 전쟁들을 테마로 한 작품수보다 비교적 작다. 그런데 최근에 태평양전쟁이 관심이 대상이 되고 있다. 몇 년 전에 만들어진 진주만이란 영화도 태평양 전쟁과 미국 하와이의 진주만에서의 전쟁을 소재로 했으며, 2010년에 미국의 유명영화 감독인 스티븐 스필버그와 유명배우인 톰 행크스가 제작에 참여하여 만든 10편의 TV 시리즈의 제목도 ‘태평양(the Pacific)’이었으며, 태평양의 전쟁 실화를 바탕으로 하여 제작되었다. 또한 태국, 싱가포르를 비롯한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에는 태평양전쟁으로 인한 참전용사의 기념비와 많은 전쟁 유적들이 있으며, 그 장소를 방문하는 유족들을 위한 공간도 마련되어 있다(Lennon & Foley, 2000).

3. 태평양전쟁과 제주도

제주도의 지리적 위치는 일본의 대륙전쟁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특히 제주도가 태평양 전쟁에서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1937년 8월 중일전쟁이 전면전으로 전개되면서부터이다. 이때 일본은 제주도를 항공기의 연료를 제공하고, 항공기가 귀환하는 중간 지점으로 이용하였다. 중일전쟁 당시 일본의 항공기들은 나가사키의 오오무라 항공기지에서 출격했지만, 임무를 마친 후 귀환하는 장소는 중국과 일본의 중간지점인 제주도 항공기 지였다.

또한 이런 제주도의 지리적 위치는 태평양 전쟁에서 유용하게 이용되었는데, 1944년 7월에 사이판의 함락으로 홋카이도를 제외한 일본 본토가 미군기의 공습 가시권에 들어가면서 미군의 본토상륙에 대한 방어준비의 일환으로 제주도를 요새화하였다. 제주도의 요새화 작전은 일본이 방어하기 위한 결전작전의 암호명인 「결호(決號)작전」 중에서 「결7호작전」으로 분류되었다. 일본은 미군이 규슈방면으로 일본본토에 상륙할 경우에는 미군이 전략상 제주도를 점령한 후 제주도에 공·해군기지를 설치해 일본 본토 공격의 전진거점으로 삼을 가능성이 클 것이라 예상했다. 실제로 미군은 1945년 9월 제주상륙을 계획했다고 한다. 만약 1945년 8월 일본이 항복을 선언하지 않았다면 제주도는 1945년 4월 1일부터 6월 25일까지 오키나와에서 벌어진 미군과 일본의 전투와 같은 사태가 벌어졌을 거라고 말한다. 그 당시 오키나와에서 미국과 일본의 3개월 동안의 전투는 미군 1만5천 명, 일본군 6만 5천 명, 오키나와 주민 12만 명을 포함하여 약 20만 명이 넘는 인명 피해와 오키나와 섬의 건물의 90%가 파괴되는 결과를 낳았다(제주역사문화진흥원, 2008).

태평양전쟁에서 제주도는 전략적 위치로 이용되면서 많은 군사적 장소들이 건설되었다. 이런 장소들은 태평양 전쟁이 65년 전에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 곳곳에 남아 있으며, 특히 대정지역을 중심으로 많이 분포해 있고 그 보관상태도 양호하다.

IV. 태평양전쟁과 연관된 제주도내 다크투어리즘 장소

태평양 전쟁과 관련된 장소들은 제주도 곳곳에 존재하고 있다. 진지굴과 알뜨르 비행장과 격납고, 평화기념관들이 태평양 전쟁과 연관된 대표적인 사례이다. 여기서는 태평양 전쟁과 연관된 사례를 기술하고자 한다.

1. 진지동굴

제주도의 진지동굴 수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대략 80여 곳의 제주 오름에 700여 개로 알려져 있다. 가마오름, 송악산, 셋알오름, 수월봉, 단산, 산방산 등 많은 곳에 위치한 진지굴들은 일본이 태평양 전쟁시에 제주도를 전략적으로 이용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한국관광공사, 2007).

○ 가마오름 진지동굴

가마오름은 가마솥을 엮어 놓은 모양과 같이 생겼다고 해서 가마오름이라고 부른다고 알려져 있지만, 가마오름의 ‘가마’는 신성하고 거룩하다는 뜻을 지닌 ‘감’에서 나온 말이니 ‘신령스러운 산’으로 해석해야 옳다고 할 수 있다. 제주도의 368개의 오름 중에서도 그 높이가 낮은 해발 140m의 오름이며 지면에서의 높이는 51m이다. 가마오름 속에는 태평양전쟁 시기에 방어전술을 위해 구축해 놓은 진지굴이 3층 구조로 되어 있고 수 십 개의 방이 통로를 따라 상하 좌우로 연결되어 있어서 외부인이 들어오면 빠져나갈 길을 찾을 수 없다고 한다. 또한 진지굴의 길이는 약 2미터 정도로 길고, 수 십 개의 방들의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핵심 군사령부였다고 할 수 있겠다.

○ 수월봉 진지굴

일본이 제주도에 건설한 해안 특공기지는 대정읍 송악산, 서귀포시 삼매봉, 성산읍 성산 일출봉, 조천읍 서우보, 한경면 수월봉 등 모두 5개 장소라 할 수 있다. 수월봉에 위치한 해공 특공기지에 배치되거나 배치될 특공병기는 ‘카이텐’이라는 이름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어뢰정과 자살 특공 병기로 이용된 고속 모터보트 ‘신요’ 등이다. 신요는 목제 고속모터보트로 앞머리에 폭약을 장전하고 1명 또는 2명이 승선하여 미군 함정에 충돌하는 수상 특공병기이며 자살병기이다. 이 신요를 숨기고 미군함정이 나타났을 때 자살공격에 이용할 목적으로 수월봉 절벽에 인공굴을 팠는데, 이것이 수월봉 진지굴이다.

○ 산방산 진지굴

일본군은 태평양 전쟁말기에 제주도를 요새화 할 목적으로 제주의 산방산에도 어김없이 진지굴을 팠다. 산방산의 진지굴은 여느 오름과 달리 북북서 방향에서 동동북 방향으로 산을 관통하는 굴로서 벽면에는 착암기로 구멍을 낸 흔적도 있으며, 벽체에 나무기둥을 세웠던 흔적도 뚜렷하게 남아 있다고 한다. 관통형 진지굴의 입구에서는 가마오름 쪽이 보이고 출구에서는 화순 앞바다가 조망된다고 하는데, 그 당시 화순항은 일본의 군수물자를 실어 나르던 아주 중요한 항구였으며 미군이 제주도 상륙시 이용될 것으로 예상된 가장 유력한 장소이었다. 따라서 일본군은 산방산을 주저항진지로 구축했을 뿐만 아니라 막강한 병력도 배치하였다.

○ 셋알오름 진지굴

제주도 진지굴 중에서도 가장 규모가 큰 것으로 알려진 것이 셋알오름 또는 일명 알오름이라 불리는 진지굴이며 그 길이가 1,220미터에 달한다. 태평양 전쟁 말기에 알뜨르를 비롯하여 알오름과 송악산 등 제주도의 서남부 일대는 일본군 최대의 군사요지가 되었다. 이 지역은 대규모 비행장과 해군 특공기지, 최대의 진지굴 등 다양하고 규모가 큰 군사시설이 밀집된 곳이었으며, 타 지역에 비해서 전쟁 유적들이 보존상태가 양호한 편이라 거대한 일본군 전쟁 유적 전시관이라고 할 수 있겠다.

○ 송악산 진지굴

송악산 해안 절벽의 아름다움을 훼손한 일본이 만들어놓은 진지굴들은 일본의 어뢰정 ‘카이텐’을 감추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카이텐은 폭약을 싣고 모잠수함에서 발사되어 상대방 함선에 충돌하는 자살 공격용 병기이며, 명중률 100%로 종전 때까지 약 30척의 미국 군함을 격침시켰다고 한다. 이런 카이텐을 감추어 놓는 시설을 송악산에 만들어 놓았지만 실제로 카이텐이 배치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송악산의 진지굴 수는 15개로 일명 ‘일오동굴’이라 불리며, 대부분은 직선형이지만, H자 형도 있고 ㄷ자형, 반달형도 있다. 진지굴의 입구는 가로가 2.5~4.5m, 세로가 2~4m 정도의 크기이며, 길이는 짧게는 6m에서 길게는 40m이다.

일본군이 제주도에 파놓은 진지굴들은 일본이 제주도를 요새화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실적인 증거이며 우리나라의 근·현대사의 한 획을 긋는 일제시대와 태평양전쟁의 역사교육을 위한 중요한 자원이다. 하지만 현실은 이런 자원에 대한 연구와 진지굴에 대한 복원사업이 안 되고 있고, 학술적인 자료 획득에서 어려움이 많아 전문적인 교육자원으로 활용되고 있지 않다 (고승익, 2011).

2. 알뜨르 비행장과 격납고, 통신시설

태평양 전쟁에서 제주도의 전략적 지정학적인 위치는 일본과 중국의 중간 거점이다. 일본은 이런 제주도의 지정학적 위치를 잘 활용하였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알뜨르 비행장 건설이라 하겠다. 일본은 대륙침략을 위해 해군 항공기지가 필요하였으며, 알뜨르는 일본의 비행장 건설에 적합한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1926년 공사를 시작하여 10년 만에 약 20만 평 규모의 비행장이 알뜨르에 만들어졌으며, 1937년 8월 일본의 중일전쟁 동안 이 비행장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였다. 그때 일본은 중국 난징에 대공습을 하여 엄청난 폭격을 가했는데, 이때 난징으로 향한 폭격기는 나가사키 현에 있는 오무라 해군 항공기지를 출발하여 제주 알뜨르에서 연료 등을 공급받았다고 한다. 중일전쟁 이후 일본은 오무라 해군 항공기지를 아예 알뜨르로 옮겼다. 태평양 전쟁 동안에는 제주도를 일본 본토의 수호 방패로 삼고자 하여, 1944년 10월 알뜨르 비행장을 66만 평으로 확장하는 계획을 세우고, 미군의 공습에 대비하여 전투사령실, 병사, 의료시설, 탄약고, 연료고, 비행기 정비공장, 어뢰조정고, 통신실, 발전소 등 여러 군사시설을 지하에 감추었다. 또한 격납고에 덮개를 덮어 은폐하는 작업도 실시했다(한국관광공사, 2007).

제주도내 일본군의 비행기 격납고는 모두 20개이며, 하나가 무너져 콘크리트 잔해만 남은 상태이고, 대부분 원형을 유지하고 있다. 일본군의 비행기 격납고는 나지막한 돔 형식으로 폭이 18.7m이고 높이가 3.6m 길이가 11m의 규모이며, 지붕은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두께가 0.6~1미터에 이르고 있다. 또한 지붕은 흙을 덮어 위장했다. 이 격납고는 폭격기 ‘아카토펙’을 감추려는 목적으로 구축되었으나 태평양 전쟁 말기에는 전투기가 부족하여 실제로 아카토펙이 배치되지는 않았다. 격납고를 포함하여 알뜨르 비행장에서의 일본군 전쟁유

적은 막사, 정비소, 탄약고, 지하벙커, 통신소 등 50개나 된다.

일본은 통신시설도 제주도에 구축했다. 일본 해군 항공대 통신시설로 이용되었다고 전해지는 장소는 모슬봉에 위치해 있는 이교동 통신시설이다. 1944~1945년 8월 사이에 건축된 것으로 추정된 이 군사시설은 구조가 매우 특이하고 보존상태도 양호한 편이다. 또한 태평양 전쟁 말기 일본군 통신 부대가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군사시설이 모슬봉 기슭 대정교 교 정문 앞에 남아 있는데, 내부는 Y자형 지하 벙커인데, 꽤 견고하고 규모가 크다.

3. 평화기념관

제주도 내에서 일제시대의 전쟁유물을 전시하고 있는 대표적인 장소는 2004년 2월 한경면 청수리 평화동에 위치한 평화기념관이다. 이 박물관은 영상과 유물 및 자료를 관람할 수 있는 실내 전시실과 가마오름 진지굴을 체험하는 실외 공간으로 분리되어 있다. 영상물은 태평양전쟁 말기의 전쟁 상황을 보여주는 기록영상과 제주에서 정용군으로 군사기지 건설에 직접 참여하거나 당시 상황을 목격한 제주 주민의 증언을 담고 있다. 또한 박물관 전시물로는 일본군이 사용한 전투복·외투·철모·방한장갑·각반·발목대·탄약통·권총집·망원경·물통·라디오·소화기·전화기·사이렌·측량기·사진기 등의 군수용품, 곡괭이·툭·망치·전등 등 비행장이나 진지굴 같은 군사시설을 구축하는데 동원된 노역자들이 사용했던 도구, 당시 발간된 신문·교과서·채권·문서·사진 등 일제 강점기 당시의 생활에 사용되었던 유물들이다.

제주평화기념관은 태평양전쟁 당시의 역사와 제주도의 생활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장소이다. 또한 일본의 만행과 전쟁 참상, 제주주민들이 진지굴과 공항건설에 강제 동원되는 노역자로서의 수난 등을 알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하다.

V. 다크투어리즘 명소로의 발전방향

20세기의 세계 역사를 바꾼 전쟁이 있다면 1914년에 일어난 제1차 세계대전과 1939년에 일어난 제2차 세계대전, 한국전쟁, 베트남전쟁, 이라크전쟁 등일 것이다. 이런 전쟁을 테마로 하여 전쟁의 참혹함을 사실적으로 보여주며, 전쟁유적이 잘 보존되고 현재에도 전쟁에 대한 교육장소로 이용됨과 동시에 다크투어리즘 명소로 알려져 있는 곳들은 유럽에 위치한 장소와 미국의 일부 장소들이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아우슈비츠를 중심으로 한 유대인 학살과 관련된 장소들이며, 베를린 장벽도 이에 해당된다.

이에 반해 아시아를 중심으로 하여 태평양에서 발생한 전쟁에 대한 전쟁유적지들은 많으나 다크투어리즘 명소로 알려진 장소는 손으로 헤아릴 정도이다. 싱가포르의 창기교도소(Changi Gaol), 미국 하와이의 아리조나 기념관(USS Arizona Memorial), 태국의 콰이강의 다리(The Bridge on the River Kwai), 미얀마의 물자수송을 위해 만들어진 태국의 죽음의 열차는 태평양 전쟁을 테마로 한 대표적인 다크투어리즘 명소들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태평

양전쟁의 가해자이면서 한편으로는 원자폭탄의 피해자인 일본의 히로시마 원폭 돛도 전쟁의 잔혹함을 보여주는 증거라 하겠다.

이처럼 동남아시아의 여러 나라들과 일본은 태평양 전쟁을 테마로 하여 다크투어리즘 명소를 만들었는데 반하여 우리나라는 태평양 전쟁의 커다란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다크투어리즘 명소가 없는 실정이다.

앞에서 제주도에 있는 태평양전쟁 유적지를 소개한 것처럼, 제주도도 태평양 전쟁과 관련된 장소들이 많으며, 이런 전쟁유적지들은 일본이 제주도를 요새화 했다는 사실적인 증거들이고 잘 보존되어야 하는 장소들이다. 또한 진지굴을 비롯한 알뜨르 비행장, 가마오름 진지굴과 평화기념관, 일출봉의 진지굴, 격납고 및 일본이 이용했던 통신시설 등은 다크투어리즘 명소로 개발될 충분한 잠재력이 있는 관광자원이며 역사교육현장이다.

다만 제주도의 전쟁 관련 유적을 개발할 때, 일제강점기나 암흑시대를 강조하기보다는 세계가 보편적으로 인지하는 '태평양 전쟁의 유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세계적인 다크투어리즘 명소로 나갈 수 있는 방향이다. 태평양 전쟁이란 테마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중국, 미국 등 여러 나라들이 공감하는 테마이며, 서로 이해하고 공유할 수 있는 테마이다. 그러므로 제주도의 전쟁 유적지들을 개발하여 관광명소로 만들어서 제주도를 방문하는 내·외국인에게 전쟁의 참혹성을 알림과 동시에 역사교육의 장소로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더 나아가 이 전쟁 유적지들은 '평화의 섬'이라는 제주도의 이미지를 내·외국인에게 강화시킬 수 있는 대표적인 관광지가 될 무한한 잠재력이 있는 관광자원이다.

<참고도서>

- Ashworth, G., & Hartmann, R. (2005). Introduction: managing atrocity for tourism. In G. Ashworth & R. Hartmann (Eds.), *Horror and human tragedy revisited : the management of sites of atrocities for tourism* (pp.1-14). Sydney : Cognizant Communication Corporation.
- Baldwin, F., & Sharpley, R. (2009). Battlefield tourism: bringing organised violence. In R. Sharpley & P. R. Stone (Eds.), *The darker side of travel* (pp.186-206). Bristol : Channel View
- Blair, J. (2002, June 29). Tragedy turns to tourism at Ground Zero. *The New York Times*.
- Blom, T. (2000). Morbid tourism - a postmodern market niche with an example from Althorp. *Norwegian Journal of Geography*, 54(1), 29-36.

- Foley, M., & Lennon, J. J. (1997). Dark tourism - an ethical dilemma. In M. Foley, J. J. Lennon & G. A. Maxwell (Eds.), *Hospitality, tourism and leisure management : issues in strategy and culture* (pp.153-164). London : Cassell.
- Lennon, J. J., & Foley, M. (2000). *Dark tourism*. London : Continuum.
- Miles, W. F. S. (2002). Auschwitz: museum interpretation and darker tourism. *Annals of Tourism Research*, 29(4), 1175-1178.
- Rojek, C. (1994). *Ways of escape : modern transformations in leisure and travel*. London : Macmillan.
- Ryan, C. (Ed.). (2007). *Battle tourism : history, place and interpretation*. Amsterdam : Elsevier Butterworth-Heinemann.
- Seaton, A. V. (1999). War and thanatourism: Waterloo 1815-1914. *Annals of Tourism Research*, 26(1), 130-158.
- Seaton, T. (2009). Purposeful Otherness: approaches to the management of thanatourism. In R. Sharpley & P. R. Stone (Eds.), *The darker side of travel* (pp.75-108). Bristol : Channel View.
- Stone, P. R. (2006). A dark tourism spectrum: towards a typology of death and macabre related tourist sites, attractions and exhibitions. *Tourism*, 54(2), 145-160.
- Strange, C., & Kempa, M. (2003). Shades of dark tourism: Alcatraz and Robben island. *Annals of Tourism Research*, 30(2), 386-405.
- Uzzell, D. L. (1989). The hot interpretation of war and conflict. In D. L. Uzzell (Ed.), *Heritage interpretation* (pp.33-47). Bristol : Belhaven Press.
- Wight, A. C., & Lennon, J. J. (2007). Selective interpretation and eclectic human heritage in Lithuania. *Tourism Management*, 28(2), 519-529.
- Wilson, J. Z. (2008). *Prison : cultural memory and dark tourism*. New York : Peter Lang.
- 고승익 (2011). 제주 근대문화유산의 다크투어리즘 활성화 방안. 『제1회 평화교육관광 국제심포지움 (2011.9. 2~3)』
- 제주역사문화진흥원 (2008). 『일제 동굴진지 등록문화재 종합 학술조사 보고서I』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역사문화진흥원.
- 한국관광공사 (2007). 『알뜨르, 그 아름다움 속의 낯설음』 서울 : 한국관광공사.